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진로
이웃 사랑

주관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 1:21)

대한예수교총회 서울총회사무관 강갑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5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조광현 편집: 양재웅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선교!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막 16:15). 이제! 은혜를 입은 여러분이 나설 차례입니다(딤후 2:11-15).

“사순절, 새벽을 깨우며 준비하세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2월 9일(수)~3월 20일(주) 오전 4시 50분

교회의 성장과 관련하여 특히 신약 시대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정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사순절(四旬節)은 대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부활절 전 40일간의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며, 주님이 겪은 수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부활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여 주일을 행한 40일 동안의 기간이며, 특별히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은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이라 불립니다. 올해 사순절은 2월 9일 ‘재의 수요일’에 시작하여 3월 26일(부활주일전야)에 끝납니다.

총현의 모든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에 계속될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아야겠습니다. 특별히 8월에 개제된 날짜별 주일 교구 일표지를 참고하시어 각 교구에서는 해당 날짜에 강대상을 중심으로 알맞게 있는 장로님과 우측 두 좌석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주일 교구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특별 새벽기도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말씀으로 통성한 그릇 (금요집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다.”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 이시며 또한 동시에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독교의 초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경에 있는 모순은 아닌가?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계시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절대적으로 단언하고 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 의 아들로 표현한다(요 1:2). 성육신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피조물보다 신재하시 뿐 아니라 영원하시다.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그가 곧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에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3, 4)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은 하나님 안에 인격적인 구별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신적 호칭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용어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主)라는 이름을 주셨다(딤후 9-11).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스도 자신과 제자들에게 의해서 과장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 한 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찬고 있는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본성(요 1:14).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다. 인간의 약한 본성, 죄로 가득한 육체(flesh)를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눈으로 보며 만지고 느낄 수 있다(요 1:2). 이처럼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은 창조주의 기가 막힌 은총이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놀라운 것이라 표현한다. “아들께 관하여는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높은 공평한 홀이시다”(히 1:3).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영원한 왕의 보좌에 앉으셨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말한다.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높은 공평한 홀이시니”(시 45:6). 또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딤후 2:3). 하나님은 은총이시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시다. 복스러운 소망이시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께 내게 주신 것보다 나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생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요 17:24).

백성들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듣게 된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기도! (눅 6:12)

2005년 제4차 창치기 훈련, 2월 18일(금) 저녁 7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또한, 모든 영의 활동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은혜를 좇아야 할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치 켄새마에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계속 잠만 자고 있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더깁니다. 주님의 음성에서 귀를 닫아 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2005년 총현의 모든 창치기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가 전혀 필요 없었던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적인 기도자 아니라 산에 홀로 가서서 간절히 기도를 드려ছিলেন. 이번 창치기 훈련은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의로움과 욕망을 위한 기도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받아 좋은 땅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니 창치기 가사 받아 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눅 6:12).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며 창치기 훈련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눅 3:21,22). 물 위에 걸었고, 변화산상의 체함과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지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이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막 16:16,17). 베드로가 이처럼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리스도 자신이 증거한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요 10:36). 부활의 주일 앞에서 도마는 간증한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요 20:28). 한 때 그리스도의 적이었던 바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한 뒤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만 드리지는 경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경배를 요구하셨다(딤후 2:11, 요일 5:9, 요일 5:11, 요일 5:23, 요 10:30).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음으로만 받아드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곧 하나님이라하는 사실은 그 사역과 또 성품에 의해서도 확실히 나타낸다. ①영원하시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였던 형호되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와 영화롭게 하옵시라”(요 17:5).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원한 것이요. 그것들은 다 못과 같이 아버지라니 의복처럼 갈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니 주는 영원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히 1:11,12). ②창상 어디에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③전지자라하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3). 오직 만물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들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나 주관들과나 지각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골 1:16,17). “그 하나님과 같이 죄를 용서하시니라.” 그러나 인간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은 누구도 모를 줄을 알고 하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제 일어나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눅 5:24). ④모든 사람은 심판 날에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만민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요 5:26,27).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닫게 된다.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신성은 분명한 진리이다.

“많은 이단들의 도전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경의 분명한 증거이다. 니케아 공의회(A.D. 325)에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와 같은 속성과 본질을 가지셨으며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신을 신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인했다.

또한, 칼케돈 공의회(A.D. 451)에서는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임을 선언했다.

REAL PEACE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but take courage; I have overcome the world.”

(John 16:33)

Everyone understands the meaning of peace. They know how it feels, and they know how to communicate it. You only experience real peace in Jesus Christ. In today's Bible verse Jesus said,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but take courage; I have overcome the world.” What are these things? In John chapters 13-16, Jesus explained that He came from God, and was going to leave this earth soon to return to God. He mentioned that one of His disciples was going to betray Him, and another was going to deny Him three times. He pointed out that the world hated Him, and would soon crucify Him, but in three days, He would resurrect, so that in front of the cross every disciple could find freedom. In other words, He talked about reality.

Jesus talked about all these things because His main concern was for His disciples to have peace in Him. He did not want them to misunderstand,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so that you may be kept from stumbling”(Jn. 16:1). He wanted His disciples to remember His words, “But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so that when their hour comes, you may remember that I told you of them. These things I did not say to you at the beginning because I was with you”(Jn. 16:4). Jesus wanted to give His disciples real peace, a peace different from any peace of this world.

What kind of peace does Jesus offer His disciples? He gives them a peace that reconciles God and sinners. His peace between the Creator and His creatures is eternal. Romans 5:1&2 says, “Therefore,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also we have obtained our introduction by faith into this grace in which we stand, and we exult in hope of the glory of God.” The cross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justifies sinners. We become righteous in the sight of God through our faith in Jesus Christ.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reconciles us with God, which in turn gives us peace. Therefore, through Jesus Christ we will enter the eternal grace and glory of God.

You cannot find the peace of Jesus Christ anywhere else. There is no place or no person on this earth with such a gift. The world gives you pain and suffering. It has every sort of trouble, but no lasting relief. Even in the church, you will suffer tribulation. John 16:2 says, “They will make you outcasts from the synagogue, but an hour is coming for everyone who kills you to think that he is offering service to God.” Christians in the church will undergo persecution by those who think they know Jesus, but actually have no clue about the cross but much knowledge concerning worship entertainment and the comfort it brings. John 16:3 clearly says, “These things they will do because they have not known the Father or Me.”

Those who love the world and the things in it hate those who do not love the world or the things in it. In other words, those who belong to the world despise those who do not belong to this world. John 15:19 says, “If you were of the world, the world would love its own; but because you are not of the world, but I chose you out of the world, because of this the world hates you.” People within the church and people outside of the church, those who use Jesus' name and those who do not, will hate you. Those who use Jesus' name hate you because they do not stand upon His foundation. They do not stand upon it because they do not know what the foundation of Jesus Christ is. As such, they go the opposite way, the way of the world, the way of unbelievers.

Non-Christians love the world and the things in it, but they cannot control it. Only Jesus Christ controls this earth by His cross. After Jesus prayed in

front of a crowd of people, God answered His prayer aloud. Jesus told the crowd, “This voice has not come for My sake, but for your sakes. Now judgment is upon this world; now the ruler of this world will be cast out”(Jn. 12:30&31). He also said, “And I, if I am lifted up from the earth, will draw all men to Myself”(Jn. 12:32). Here is our encouragement. Believers can be brave. After preaching Jesus to the top officials of the Temple, the apostles were beaten, “So they went on their way from the presence of the Council rejoicing that they had been considered worthy to suffer shame for His name”(Acts 5:41). They were fearless in their endeavors because Jesus conquered this earth by the cross. Jesus told Paul, “Take courage; for as you have solemnly witnessed to My cause at Jerusalem, so you must witness at Rome also”(Acts 23:11). As we take our cross, we too can be courageous because Jesus' resurrection gives us real peace,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nor let it be fearful”(Jn. 14:27). Jesus gives us triumphant peace!

My friends, it is very important that you understand what kind of peace Jesus gives. He explained that after His death, this peace would come, and this peace came after His resurrection. The world can only give you trouble, no matter who you are or where you live, tribulation will come. Such is the way of this world. No man can avoid it. Therefore, whatever peace one finds in between difficulties, is only passing. It is not real peace because it passes ever so quickly. The peace of Jesus Christ, the peace that is in Him is everlasting. It is an overcoming peace. It overcomes all difficulties. No trouble is too much or too hard for the peace of Christ. It even overcomes sin and death.

The peace of God cam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nd God gives it to all who have faith in His Son. Acts 2:24 says, “But God raised Him up again, putting an end to the agony of death, since it was impossible for Him to be held in its power.” Paul declared, “For I delivered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what I also received,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1 Cor. 15:3&4). If Jesus Christ was not raised, your faith is worthless; you are still in your sins (1 Cor. 15:17). If you have hoped in Christ in this life only, you are of all men most to be pitied(1 Cor. 15:19). “But now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are asleep”(1 Cor. 15:20). Amen!

The great peace in Jesus Christ is in knowing that He is coming again, “Then we who are alive and remain wi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shall always be with the Lord. Therefore comfort one another with these words”(1 Thes. 4:17&18). 1 Peter 1:3-5 reveals the foundation,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according to His great mercy has caused us to be born again 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to obtain an inheritance which is imperishable and undefiled and will not fade away, reserved in heaven for you, who are protected by the power of God through faith for a salvation ready to be revealed in the last time.” Jesus spoke about this real peace. He spoke about these things because He wants you to have peace in Him.

Are you experiencing real peace in Jesus Christ? When bad things happen and hard times persist, are you able to find comfort and courage in trusting Jesus? Please, please, please stop looking to other people and other things to ease your burdens. Turn to Jesus and rely on Him. His peace surpasses all understanding. It is available to everyone who stands upon His foundation. ☩

참 평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 16:33)



김성관 목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

모든 사람들은 평안의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이 어떤 것이고 또 평안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며, 한 사람은 새 반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이 자기를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지만 삼일 후에 자신이 모든 죄를 부활할 것이라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자루를 발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되돌릴 일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측치 않게 하려 함이라.”(요 16:1).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말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제자들이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요 16:4).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평안을 주고 싶어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안을 주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하게 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들 사이에 이루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따라서 5장 12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 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인들을 의롭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다른 곳에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그렇게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이나 장소는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 뿐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고난이 다 존재하지만, 영원한 평안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을 말합니다. “자라들이 이 너희를 출회한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사람들의 기쁨을 좇게 만들어 주는 예배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식들과 다른 사람들, 곧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니 너희를 미워하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건,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이 예수님의 기조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조에서 있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장반대의 길, 세상의 길, 불신자의 길로 갑니다.

십자가를 통한 참 평안

불신자들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힘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십자가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소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요 12:30,31).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요 12:32). 여기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용기를 내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용서받지 않았고, 예수님을 전한 후에 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매를 심하게 맞은 후에 사도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행 5:41). 사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용서받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땅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기를 하리라 하시니라”(행 23:11b). 자기 십자가를 नी어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나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 곧 나의 평안은 너희로 믿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 그 평안이 일할 것이라고 설명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평안이 제자들에게 일했습니다. 이 세상은 기껏해야 고통만 줄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또 어디에서 살든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식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혹시 고난 속에서 어떤 평강을 발견한다 해도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은 너무나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참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 안에 있는 참 평안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기는 평안입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도 쫓이지 않는 평안입니다. 아무리 많고 힘든 고난도 믿음으로 이기는 평안 안에서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십자가 죄와 사망도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제임을 통한 참 평안

하나님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고통을 겪어 살았으니 이는 그 사람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없었나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4).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되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믿었던 가도만 있을 것이요”(고전 15:17). 믿을 기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5절을 밝혀 줍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그 값으로 사내신 고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으로 살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게 하시고 고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고 행하게 하시니라.”(베드로전서 1:3-5).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평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재화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리라”고(고 3:1)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7,18). 평안의 기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5절을 밝혀 줍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그 값으로 사내신 고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으로 살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게 하시고 고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고 행하게 하시니라.”(베드로전서 1:3-5). 어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용기내어 다시 일어나 수 있습니다(잠 17:22)?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히,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그 평안을 위해서 사도들과 세상적인 것들을 절대로 잊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 사탄과 악을 만만 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의지하십시오. 기억하라!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장로 칼럼

십자가 복음에 기초한 천국일꾼



차 신득 (제1교육위원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천천교회는 선교와 함께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회 설립 10주년부터 "천국일꾼을 키우자"라는 표어 아래 온 교회가 신앙교육에 힘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천국일꾼 양성을 교회 5대 목표 중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천천교회에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교회는 성도들이 복음의 확산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거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천국일꾼이 되게 하기 위하여, 각 태어난 어린 아기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천천의 전 성도들을 대상으로 신앙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천천의 성도에게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할 복음의 증인들

제1교육위원회는 각 태어난 신생아로부터 중학생에 이르는 인생의 중요한 성장과정에 있는 심령들을 대상으로 신앙 교육을 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입니다. 한 분의 목사와 세 분의 장로, 아홉 분의 교회학교 부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각 교회 학교로 영아부로부터 중등3부에 이르기까지 총 9개의 교회학교, 2200여 명의 학생과 480여 명의 교사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미려한 아동들을 위해서는 영아부(0세-2만세), 유아부(만3세-4세), 유치부(만5세-6세)가 있고, 취학아동들을 위한 유년부(1,2학년), 초등부(3,4학년), 소년부(5,6학년)가 있으며, 사춘기에 접어드는 중학생들은 각 학년별로 중등1부, 중등2부, 중등3부로 나뉘어 매주일 예배드리며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영아부 · 유아부 · 유치부

태어난 지 몇 주 되지 않은 아기들부터 이제 막 걷기 시작하며 예쁜 모습을 보이는 아기들까지 전사와 같은 아기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아기들의 예배지만 신령과 진리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며 분반공부 시에는 그림교과 등을 활용, 아기들이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영아부로부터 유아부까지는 학부모와 함께 예배드리고 공부하지만 유아부 상급반인 만 4세 이후부터는 대개가 부모 품을 떠나 혼자 예배를 드리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체계적인 신앙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년부 · 초등부 · 소년부

초등학교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2년마다 유년부, 초등부를 거쳐 소년부에 이르기까지 매주일 규칙적인 교회생활과 체계적인 성경공부, 계절학교 등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영적성장을 이루어 가며 올바른 성경식과 영적인 지혜를 습득하게 됩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로 전학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음을 인식하고 소년부 시기를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분반공부 시간에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간증하게 하여 말씀을 학교나 가정이나 생활 속에서 적용시키는 훈련을 쌓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천교회 5대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어서 분명한 비전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중등1부 · 중등2부 · 중등3부

중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각 학년별로 주제를 설정하고, 교회의 5대 목표와 금년도 역점방향 등을 학생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와 활동계획들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학생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의 기초적인 요소들을 가르치는 일과, 개인 경건생활의 훈련과 1인 1전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단기선교에 적극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계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각종 민력활동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사공사를 실천하는 계기를 부여함으로써 미처 남아 성숙된 천천의 천국일꾼으로 자라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계절학교를 통해서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는 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하여 갖게 되는 두 번의 계절학교를 통해 주일학교 교육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학생들의 신앙양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대 목표에 따른 3년차 계절학교 교육과정에 따라서 금년 겨울 계절학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일꾼"을 총주제로 삼아 각 교회 학교에서 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교사강습회를 실시하였고 각 부서별로도 준비기도와 특성에 맞는 교육자료의 마련 등 각각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현재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쳤으며, 계속해서 2월 말까지 계절학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말씀공부를 통하여 어린 아기이거나 사춘기에 있는 중학생이거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함으로써 은총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을 갖게 하고, 나아가 진정한 회개를 통한 죄 사함의 기쁨과 십자가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와 자기부인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어진 5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나 수 있도록 모든 교사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양육하는 데 교육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정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마 19:14)고 말씀하시며 천히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저의 위에 안수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모든 교사들이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일생 마음에 뿌리를 박고 저들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바람직한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은총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이를 위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전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배치되어 전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말씀 준비와 교제 준비, 학생지도 등을 하고 있으며, 예배설교나 분반공부 시 사용되는 성경공부 교제는 위임목사님의 그 주일의 대에배설교를 기본으로 하여 전 교회학교가 일관성있게 학생들의 연령과 수준에 맞도록 전문성을 살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교사들이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아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문서와 예배 시에 부르는 찬송의 곡들도 가급적 대 예배와 함께 하여 어려서부터 천천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찬송에 익숙하게 되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움직이는

천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천국일꾼을 키우는 제1교육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교회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 천천의 가족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자녀들을 빠짐없이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하여 매년 봄과 가을 학기로 나누어 교회가 실시하는 교사양성부와 신실할 수 양성정공부에 많이 지원해서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뒤 천국일꾼을 키우는 일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천국일꾼 양성을 위해 교회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장학제도를 통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중등부 학생들이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금년부터 중등부 학생에게까지 지원하던 단기선교의 대열에 중등부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여 이를 계기로 내가 받은 복음의 비밀을 가까운 이웃에게 전하는 1:1 전도의 실천과, 열매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열기가 중등부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천천에서 말씀을 배우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로 ②

교회는 천하만국에 복음을 전파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교부 내에 있는 외국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 거듭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소명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신학교의 교육과 교회의 양육을 통하여
현직인 사역자로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일



1.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저는 B국에서 온 박요한(가명)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항상 술에 취해서 들어오셨던 아버지 때문에 평강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자신도 술에 취하는 자신이 싫어 여러 번 술을 끊고자고 시도를 하셨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할머니의 전도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고 그로 인해 오랜만에 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께서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1992년은 잊혀지지 않는 해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예배가 가정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한두 사람 늘어나면서 현재 30명의 가정교회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와 함께 예배는 드렸지만 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2000년도까지 그저 친구들과 어울리고 대학생생활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여 공허하고 메마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분이 저에게 한국 유학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유학할 형편이 되지 않았지만 한국으로 시집은 고교의 도음으로 2001년 4월 15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저는 20세의 나이로 부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4일 후 이국 생활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4층으로 된 건물 2층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1층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갈수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누군가의 강한 불드심이 점점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예배당의 문을 열자 청년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어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언어 이상의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외자에 없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는 몰랐지만 제 마음에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 주 있는 것처럼 감동의 물결이 흘러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경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찾아 왔나?"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달 동안 빠짐없이 집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누군가가 제 곁에 계시고 지난날의 저의 죄가 용서로 상영되는 것처럼 일목연하게 비추어주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토록 오랜 동안 저를 기다리셨던 분은 바로 저를 만나 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2. 신학을 공부하며 복음 증거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

이러한 2달 동안의 은혜 가운데 제 마음에 또 하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도 이제야 찾아왔는데 아직 자기의 분향을 찾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단다. 너 어떻게 하겠니?"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강박력보다 온유한 사랑의 음성이었습니

다. "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중국의 영혼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수십억의 영혼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한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신대교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상적인 언어 사용도 서툴고 또한 신학을 해야 한다는 열정은 있지만 신앙의 깊음 뿌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마음의 고통이 올 때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와 나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수 1:9) 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3.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면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저에게는 전도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단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시라고 하시던 또한 하나님이 약속을 하였으면 반드시 그 본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과 제 할 일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현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저 자신이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죄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제가 되자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전도 현장에서

함께 전도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어느 집사님이 열심전 전도하는 모습을 보며 전도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누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도하는 그 집사님을 보니 갑자기 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감히 나서지를 못하고 망설임 중에 전도회에서 전도교육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충현전도대에서 훈련을 받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충현전도대 교육을 받으며 가나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육을 계속 받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팀을 짜서 직접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도 안 나오는 사람들 앞에서 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가 골라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출 6:30) 하자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너에게 말하여.....'(출 7:12) 모세의 둔한 입을 아론의 입술을 통하여 사용하셨던 것 같이 저에게도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뿌리치고 돌아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더 이상 말도 안 나오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동안 아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전도를 마친 후 평가회를 통하여 그런 경우가 나뉘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당하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육하고 꺾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꺾박하였느니라"(마 5:11,12)는 말씀에 크게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어 계속적으로 전도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전도를 계속하던 중 어느 날부터 '하나님 저 영혼을 어떻게 해요 너무 불쌍해요.'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 영혼 빨리 구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린 듯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여 전도하니 지금은 담대하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도 나가는 날이 매우

기다려집니다.

올해부터 교회의 126개 전도회가 각 구역별로, 전도회별 나누어 교회 전체가 교회 주변을 전도한다고 합니다. 그 동안 별로 못해서 나와 같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처럼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큰 도움이 되고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구원자임을 신실하게 믿을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불쌍하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생각하면 기쁘기 그지 없어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 수 있도록, 아니 하늘나라의 생명체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전하고 또 전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정순록 (권사, 2교구)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1월 31일(화)-2월 8일(화)	대학부5	김종석	2월 2일(수)-2월 12일(목)	대학부9	이신동
1월 31일(화)-2월 9일(수)	대학부6	이용수	2월 3일(목)-2월 11일(목)	대학부10	허형철
2월 1일(화)-2월 9일(수)	대학부7	전제서	2월 4일(목)-2월 12일(목)	2교구 추가	박홍규
2월 1일(화)-2월 9일(수)	6교구 추가	김규서	2월 4일(목)-2월 11일(목)	대학부11	여정호
2월 2일(수)-2월 9일(수)	고동부1	오순도	2월 4일(목)-2월 12일(목)	청년부1	김원호
2월 2일(수)-2월 12일(목)	대학부8	박옥현	2월 5일(목)-2월 14일(목)	청년대2	이경재

▲ 현재 사역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1월 25일(화)-2월 4일(목)	대학부1	양승복	1월 29일(목)-2월 10일(목)	대학부3	홍순길
1월 27일(목)-2월 4일(목)	직원1	손은애	1월 29일(목)-2월 10일(목)	대학부4	정용희
1월 29일(목)-2월 10일(목)	대학부2	최준승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주일을 기다린다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올라왔습니다. 오늘부터 몇 번 자연 교회 가야 하는지 엄마께 여쭈어 보았다. 나는 유년부가 좋아 정말 가고 싶다. 유년부에서 새로운 노래와 시청각 교육(비디오)을 하는데 참 재미있었다. 노이에 대해서 보았는데 또 보고 싶어 빨리 가고 싶다.

8살이 되면 찬양대를 열심히 하기로 엄마랑 약속도 했고 주님께 찬양하고 싶다. 내가 유아부 때 찬양대 하기 싫다고 엄마 팔을 뚫었던 일이 있다. 지금도 엄마 팔에 있는 그 때의 흉터가 있다. 찬양대 신청한 후 친구랑 오디션을 볼 때 '주의 친절함 팔에 안기세' (찬 458장)를 열심히 찬송했는데 다리가 덜덜 떨렸다. 그때 너무 추워서 그랬나 보다. 참았다.

월요일 아침 늦게 일어났다. 오늘이 주일인 줄 알고 잠깐 놀았다. '휴' 하고 안심했다. 찬양대를 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 9시 30분까지 유년부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주일이 되면 나 혼자 일찍 교회에 가야 한다. 나에게는 6살, 3살 동생이 두 명이 있어 엄마 아빠가 날 교회에 데려다 줄 수 없어 엄마 아빠께 "저 이제 혼자 다녀도 돼요. 유년부 찬양대 때문에 일찍 가야 돼요."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많이 좋아하신다.

유년부에 가니 성경책과 찬송가를 가방에 넣고 다니 어깨가 너무 아프다. 그렇지만 처음으로 성경책, 찬송가로 말씀 보고 찬송하니 정말 좋다. 일찍 일어나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혼자 유년부로 가는 주일을 기다린다. 예수님 말씀도 듣고,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 목사님 모두 보고 싶다.



미형준(유년부)

어느날 말과 연약한 모습뿐인...

예전에는, 내가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닫지 못했다. 아무런 팔방 없이 주님을 믿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바로게 서지 못했을 때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다.

스무 살 되던 해부터 그저 아이들이 너무 예배서 찾아간 곳. 유아부에서 난 그 감사를 깨닫게 되었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며 천국일꾼 양성에 대한 나의 작은 소망도 점점 커지고 있다.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눈 뜨고 장난치던 아이들이 어느새 "기도하자!" 하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는다. "예배시간엔 전도사님 보고 말씀 들어야지!" 하면 뒤돌아 앉아 있던 아이가 다시 맑은 눈을 두그랗게 뜨고 전도사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매주 조금씩 변화가 아이들을 보면, 이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 자녀 삼으시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된다.

그런 어린 아이들이 예배시간에 말씀을 통해 항상 배우고 따라하는 것이 있다.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을 모아 교회가 떠나가라 외치는 아이들의 소리...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사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전하리구요?" 하고 물으시면 아이들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힘차게 대답한다.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할 때는 두 손 모으고 눈을 감는 것처럼, 예배시간에는 조용히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앞으로 꼭 전해야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는 어린 아이들도 깨달아 가는 것이다.

나도 이제 유아부의 어린 아이들이 되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태초부터 나를 택하여 주셔서 먼저 주님을 알고 믿게 해주시고 살아 계신 주님의 사랑받는 딸이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딸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마음과 모든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은혜로운지를 깨닫게 해 주실 시간들을 생각하니 무척 설레고 기대가 된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하루 빨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아무런 지체도 능력도 없고 어눌한 말과 연약한 모습뿐인 부족한 종이 출발한다!

정혜리 (유아부 교사)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언교회 다니는 조예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1년간 하나님을 믿기만 했을 뿐 친구들을 전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밥 먹기 전, 자기 전 기도도 고박고박 하지 않고 제가 필요할 때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앞으로 제가 잘못한 것은 꼭 회개하고 동생도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소년부가 되어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지은 죄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런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참된 믿음을 실천하는 예전이가 되겠어요. 하나님,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예진(소년부)을림

우리를 뒀었거든요

제가 유년부에 올라와서 처음 찬양대에 서는 날 아침에 지각해서 연습도 못 하고 찬양대에도 못 갔어요. 너무 속이 상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으니가 걱정 없어요.

가정 예배시간에 액자에 든 우리집 가족사진 위에 막 바서를 했는데 그래도 사진은 깨끗했어요. 예나구요? 우리를 뒀었거든요. 예수님도 이렇게 저를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참 감사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병천(유년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중등2부에서 3부로 올라온 게 낯설게 느껴지지만 선생님들께서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것과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의 애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길 바란다. 아직 적응이 완전히 되진 않았지만 지금은 마치 원래부터 중등3부였다는 듯 자연스럽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면리회를 하다가 기차단을 하게 되었는데 아주 할 일이 많고 꽤 힘이 든다. 면리회보다 훨씬 더 힘든 것 같다. 그래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중등3부가 되어서 수련회에 처음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웬지 금방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래도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나니 기대도 되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각오로 더욱 열심히 할 생각이다.

지난 수련회는 재미있었다. 아나, 그보다 은혜가 있었다고 하나?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지만 그것만 적응되면 특별히 힘든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올 여름에는 진짜 선교를 가고 싶다. 선교지에 가서 여러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눠 주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고 싶다.

내가 커서 하고 싶었던 일인 만큼 벌써부터 기대된다. 하나님의 총명한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중등3부에서의 활동은 물론 수련회나 기차단, 선교 모두 열심히 할 것이다.

박선우 (중등3부)

